10강 - 제3세계 영화 (2)

제3세계영화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미구엘 리틴Miguel Littin 감독의 <칠레에 관한 모든 기록Acta General de Chile>(1986)를 중심으로 칠레 및 기타 아시아, 아프리카 영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칠레의 영화 감독인 미구엘 리틴은 1986년에 <칠레의 모든 기록>이라는 기록 영화를 통해서 제3세계 영화의 한 이정표를 갖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기록 영화인 만큼 칠레의 역사적 배경을 엿보게 만듭니다.

칠레는 1970년 12월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이 당선하게 됩니다. 아옌데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기도 한 이 영화는 아옌데 대통령이 인민연합과 기독교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서 1970년에 당선된 이후, 3년간의 칠레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의회 지도 아래서 사회주의 이념 실현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정부라는 점에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의회 제도 아래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 인데요. 세계의 언론에서는 '칠레의 실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서방세계에서는 위협적인 것이었는데요. '의회 제도 아래서 사회주의가 과연 정착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죠.

3년도 못되는, 거의 만 3년 되는 1973년 9월 11일에 피노체트에 의한 군사 쿠데타로 정부는 몰락하게 됩니다. 이 피노체트는 지금도 칠레나 전세계의 시민들에 의해서 상당히 지탄을 많이 받는 군부 독재자의 대표적인 우상으로 존재하는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이 아옌데 대통령 정권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칠레를 민주화의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하는 장본인이 됩니다. 그 과정을 기록한 영화인데 '아옌데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옌데는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창출된 정권이기 때문에 이 정권을 무력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뜨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계 여론의 지탄을 받아야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고요. 그 당시 군부는 인민연합파, 아옌데파에 대해 혹독한 탄압을 하게 됩니다. 임시 강제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시민들을 고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임시 강제수용소는 칠레의 대형 스타디움입니다. 이 스타디움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유엔인권보고서에는 사망이 4만명이고, 행방불명이 약 2천명, 그리고 그 당시에 망명했던 사람은 10만에서 20만명에 육박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노체트 정권은 약 15년 동안 군정을 하게되고 그 당시에 투옥됐던 사람만해도 약 1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군사정부의 독재, 고문, 투옥 이런 것들은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권 연장 투표를 하는데 거기서 피노체트가 패배하면서 군정이 끝나게 되는데요. 칠레의 국체는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피노체트의 노선이 시민들에게는 더 이상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피노체트 정권은 미국에서는 남미 반공의 보루로서 한동안 시민들을 억압 했었습니다. 피노체트는 인민민주주의 대신에 수호적 민주주의라고 해서 기본적인 자유나 인권을 제한하고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칠레 시민들에게 강행을 해왔습니다. 대통령은 군사평의회가 지명하는 후보를 국민투표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경제 자유화 정책을 통해서 개발도상국도 자유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끊임 없이 강조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에 의해서 결국은 도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요. 생산 활동이 낮아진데다가 결국은 피노체트는 외국으로 부터 무리한 차관을 들여와서 그것을 메꾸려고 하다가 국민들의 투기를 만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1970년대 말부터 마이너스 경제가 돼서 실업률이 20%이상을 육박하게 되고 8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피노체트는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집권연장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83~84년도는 바로 그런 민주화 운동이 절정에 이르게 되고 84년도 11월에 계엄령이 발표가 됩니다. 이 계엄령을 통해서 칠레는 다시 암흑에 싸이게 되는데, 이때에 바로 85년도에 망명했던 미구엘 리틴 감독과 소설가 가르시아 마르께스Gabriel Garcia Marquez가 다시 칠레에 잠입을 해서 당시 반독재 투쟁을 했던 지하 인권운동가들이라든가 게릴라들과 만나서 직접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열망을 생생하게 기록해 담았던 영화가 바로 <칠레의 모든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정서적으로 보면 긴장감이 감돕니다. 왜냐하면 마르께스가 리틴 감독과 같이 들어가서 잠입을 할 때에 변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변장을 했기 때문에 군사 정부에서 못 알아보죠, 그렇지만 카메라로 그것을 기록합니다. 변장을 하긴 했지만 삼엄한 경계를 뚫고 가야하는 그런 상황들이 영화 속에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지하 조직과 만나서 인터뷰하는 장면도 기록영화적으로 특이한 장면이죠. 어려운 인터뷰 같은 것들도 영화 속에는 나타나고요. 이 영화는 문화 지식인으로 알려진 대표적 시인인 파블로 네루다Pablo Neruda, 소설가 가브리엘 마르께스, 영화인 미구엘 리틴의 공동 합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파블로 네루다는 바로 칠레가 낳은 대표적인 시인인데요. 네루다의 시가 이 영화 속에 친밀감 있게 나타납니다. 시민들의 열망, 네루다의 생각, 네루다가 있었던 집의 벽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네루다를 열망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시를 쓰고 편지를 아직도 붙이는. 그러한 열정을 읽을 수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서 군사 독재의 강압 체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여전히 칠레 시민들은 민주화를 열망한다는 것을 아주 감동적으로 전달합니다.

결정적으로는 피노체트가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을 실각시키고 함몰시키는 장면이 이 영화 속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탱크를 몰고 아옌데 대통령궁을 함몰시키는 그러한 장면을 이 영화 속에서는 육성 녹음된 테이프를 들려줌으로서 그 당시의 생생한 현장으로 관객을 인도합니다. 아옌데 대통령은 자신이 군사 독재와 맞서 싸우면서 죽음으로써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선언했듯이 마지막 최후를 장렬하게 죽음으로써 맞이했던 역사상에 기록할만한 그런 대통령인데요. 이러한 아옌데에 대한, 그리고 아옌데와 더불어서 민주화의 기수로써 알려진 파블로 네루다, 칠레의 두 영웅을 기억하는 정서적으로도 훌륭한 영화가 바로 이 <칠레에 관한 모든 기록>입니다. 이 <칠레의 모든 기록>은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 영화로서 완성도 있게 펼쳐냈던 <칠레 전투>라는 작품과 더불어서 아옌데의 칠레 민주

화에 대한 열망을 기록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칠레 전투>와 더불어 두편의 걸작

<칠레 전투>는 빠뜨리시오 구즈만Patricio Guzman이라는 감독의 기록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는 <칠레의 모든 기록>이 담지 못한 70년에서 73년까지 아옌데 정권 당시의 모든 사례들을 면밀히 기록을 합니다. 말하자면 한 민주화 정권이 어떻게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허무하게 쓰러지는지를 그 과정을 아주 극적으로 기록한 영화입니다.

이 <칠레 전투>와 더불어서 <칠레의 모든 기록>은 그 이후에 나타난 많은 칠레에 관한 영화의 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피노체트 당시의 강제 고문과 망명과 행방불명과 투옥과 같은 고통스런 기억을 영화로 만들었던 코스타 가브라스Costa-Gavras 감독의 <실종Missing>(1982)이라는 영화라든가, 엘비오 소토Helvio Soto 감독의 <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 Il Pleut Sur Santiago>(1975)와 같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이 이후에 칠레에 관한 모든 기록에 해당하는 굉장히 새로운 영화로 등장하게 되는 그러한 원형이 되는 영화가 바로 미구엘 리틴 감독의 <칠레의 모든 기록>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리틴은 아옌데 영화 제작사 "칠레 필름"을 만들고요. 독자적인 제작과 배급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칠레 영화가 쿠바와 더불어서 중남미에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했던 중요한 나라고, 그들의 민주화 투쟁에 대한 기록이 꼭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변장을 하고 잠입해서 그것을 카메라로 기록할 만큼 리틴은 칠레를 사랑하고 칠레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대표적인 영화 감독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잠입기 스타일의 영화는 제3세계 영화에 네오리얼리즘적인 영화 미학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큐멘터리이긴 하지만 나레이터가 잠입을 해서 들어가면서 하나의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와 픽션이 서로 조화되고 있는 미학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극화된 다큐멘터리" 혹은 "기록화된 드라마"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극영화냐, 다큐멘터리이냐 하는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영화적 수법을 보여주게 됩니다. 거기에서 더 파급되면 이제 False Documentary-거짓 다큐멘터리까지 등장을 하죠. 하지만 false documentary는 극영화의 한 종류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제3세계 영화인들의 작업에서, 극영화와 기록영화를 구분되어 왔던 종래의 영화 미학을 구분할 수 없는 경계가 불분명한 새로운 미학으로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것은 이미 1940년데 중반 이후에 이태리에서 나타난 <자전거 도둑>, <대지는 흔들린다>, <무방비 도시>와 같은 네오리얼리즘 미학을 60년대 이후에 중남미에서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욱 더 확대되고 확장되고 심화된 형식인 것이죠.

그래서 네오리얼리즘의 미학, 혹은 제3세계 영화의 미학은 바로, 생생한 현실을 그대로 기록한 기록영화와 그리고 잠입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드라마를 만들어나가는 픽션이라는 두

가지를 결합한 생생한 극영화, 혹은 재미있는 허구적인 기록영화라는 극영화와 기록영화를 혼합한 양식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네오 리얼리즘의 계승

이것은 이후에 미국에서도 극영화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폴스 다큐멘터리False Documentary-거짓다큐멘터리, 혹은 극영화의 다큐멘터리적인 기법-세미 다큐멘터리Semmy Documentary라고 느껴지는 극영화-<JFK>같은 것이 대표적인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편의 기록 영화를 보는 듯하게 관객들을 몰고 나아가는 방식, 많은 인터뷰 방식의 영화들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미학적인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이 제3세계 영화의 중요성은 바로 그 정신적인 부분인데요. 민족 해방, 민주화, 혁명의 영화로서 불리는 이유, 바로 그 점이 현대 영화에 있어서도 이제 '제3세계'라는 타이틀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 가난과 궁핍 속에서 민주화를 열망하는 제3세계 국가의 영화인들에게는 깊은 귀감이 되는 영화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칠레의 모든 기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피노체트 군사 독재 정권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칠레 민중의 고통의 증언에 대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좌절을 딛고 다시 불붙고 있는 칠레 혁명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 영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영화는 미구엘 리틴이라는 영화 감독이 1985년에 우루과이 사업가로 위장을 해서 체포의 위협을 무릅쓰고 조국 칠레에 잠입을 해서 국내 혁명 조직의 긴밀한 협조와 보호 아래 6주에 걸쳐서 치밀하게 계획한 대로 대통령 관저인 모네다 궁의 내부를 비롯해서 칠레 각지를 촬영합니다. 또 무장 투쟁 조직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함으로서 1986년에 TV용 4시간, 극장용으로는 1시간 50분 짜리 4부작으로 된 방대한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이 영화 제작에는 이태리,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의 3개 영화팀과 칠레의 6개 비합법 영화 청년 조직이 촬영에 참여했는데요. 유명 소설가 가르시아 마르께스와 이태리의 여기자, 라틴 아메리카의 영화인 등, 많은 진보적 지식인과 예술인들의 제작과 배급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질 당시의 배경과 더불어서, 칠레는 강화된 혁명 역량을 갖고 있었고 또 민중들이 지하 운동가들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영화 제작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칠레의 모든 기록>은 조국애와 민주화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는 용기있는 혁명적 영화인 미구엘 리틴의 작품일 뿐만 아니라, 칠레 민중 공동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민족해방 투쟁과 반독재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 연대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라틴 아메리카는 물론,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 서유럽, 미국, 일본에서도 상영이 되었는데요. 배급은 상업 영화의 배급망과 아울러 진보적 영화 단체의 자주적 상영 통로를 통해서 개봉되고 있습니다. 1986년 11월 "라이프찌히 영화제"에 출품해서 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12월에는

쿠바의 아바나에서 개최된 "새로운 라틴 아메리카 국제 영화제"에서 또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모험에 가까운 이 영화 제작에 관한 전문은 노벨상 수상 작가인 마르께스에 의해서 <리틴의 모험-칠레 잠입기>라는 르포르타주 소설로서 영화와 함께 출판 되었는데요. 이 책은 영화 배경과 정치적 의미 또한 계엄령이 내려진 칠레의 상황뿐만 아니라 12년간 조국을 떠나 있었던 망명객 리틴 감독의 고뇌와 향수, 그리고 그의 사상과 민중에 대한 신뢰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칠레의 정치 사회적 현실을 자세히 돌아보면요. 1973년 9월 11일,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이행, 사회주의 혁명의 새로운 길을 내세웠던 아옌데 인민연합 정권이, - 이 인민연합 정권은 사회주의적 개혁 정책을 내세웠고, 국내외 독점 자본이라든가 미국 제국주의 파시스트의 반혁명연합을 억눌러 왔던 그러한 연합 정권이었는데 - 반공노선에 근거한 피노체트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결국 3년만에 중단되고 맙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레 혁명이 3년만에 실패했던 것은 전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칠레의 역사와 칠레의 민중들에게 가장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피노체트의 파시스트 체제는 칠레가 자랑하는 150년 동안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전통을 여지없이 파괴했고, 반민족. 반민중적 정권 아래 민중들은 기나긴 밤을 공포로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겔 리틴감독과 새로운 칠레영화

미겔 리틴은 1942년 8월 칠레의 중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 그리고 그의 이력을 알아보는 것도 이 영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산티아고 칠레 대학에서 극예술, 무대 미술, 영화 이런 것들을 폭넓게 두루 공부했고요. 칠레 사회의 모순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그래서 초기 학생일 때부터 강한 정치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인민행동전선"이라는 사회당을 주축으로 한 통일전선 단체에서 활동을 했고요. 1958년에는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 후보를 위한 열렬한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연이 바로, 아옌데가 피노체트 군부 쿠데타로 의해서 쓰러지는 것을 영화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했겠지요. 이 리틴 감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신이 사회주의자로 불리기를 바랍니다. 칠레를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이 언젠가는 사회주의가 건설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요.

리틴 감독이 영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것은요, 1962년도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작가인 요리스 이벤스Joris Ivens-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이 감독이 발파라이소 항구에 대한 기록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칠레에 왔을 때, 패트리시오 구즈만-<칠레 전투>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역시 유명해진 감독이죠, - 이 패트리시오 구즈만 등 산티아고 영화 청년들과 함께 영화 작업에 협력하면서부터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 요리스 이벤스 감독은 네덜란드 감독이지만 스페인 내전에도 참전을 해서 좋은 기록영화를 만들었고 다큐멘터리를 잘 만드는 감독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인데, 칠레의 영화 청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칠레의 모든 기록> 영화에도 피노체트 정권 아래에서 활기를 잃고 잿빛으로 변한 발파라이소 항구를 묘사한 시퀀스가 있습니다. 리틴 감독은 이 부분을 요리스 이벤스 감독에 대한 경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영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쿠바 혁명의 성공과 국제 정치 역학 관계의 변화에 힘입어서 민족해방 투쟁이 한층 가열차게 전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틴을 비롯한 칠레의 영화 청년들도 "새로운 칠레의 영화"라는 개념으로 제3세계 영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1968년도에 칠레에서 3편의 새로운 영화가 만들어지죠. 리틴의 첫 장편 극영화인 <나후엘토로의 자칼El chacal de Nahueltoro>이라는 작품하고, 라울 루이쯔Raoul Ruiz 감독의 <세 마리의 슬픈 호랑이Tres tristes tigres>, 그리고 알도 프란시아Aldo Francia 감독의 <내사랑, 발파라이소Valparaiso mi amor> 이렇게 세 편입니다.

이 세 편의 영화는 새로운 칠레 영화가 진정으로 민중 속에서 혁명의 전망을 제시하기에는 제국주의 세력과 칠레 지배 계급이 뿌려놓은 문화 이데올로기 모순의 벽이 너무 두껍다는 것을 고발하는 메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칠레에서는 한 해에 고작 10편 남짓한 영화가 제작되었을 뿐인데요. 대부분의 극장을 장악하고 있던 것이 또 헐리우드 영화였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제3세계 영화는 곧 헐리우드 영화와의 전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97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민연합의 승리, 곧 아옌데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향한 또 다른 대안이 받아들여졌지만-많은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반혁명 세력으로부터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3년 동안의 반혁명 세력으로부터 도전을 받는 당시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 바로, 패트리시오 구즈만 감독의 <칠레 전투>라는 영화죠. 바로, 칠레 내전을 방불케 하는 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 간의 쿠데타와 또 다른 쿠데타를 그린 것입니다.

아옌데의 3년간의 사회주의 정권이 영화계에 상당히 많은 혁명적인 변화를 또한 갖고 왔는데요. "칠레 필름"이라는 영화사를 창설했고, 그 대표로 바로 리틴 감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칠레 필름"은 지금까지 제국주의 영화를 구축하고 칠레를 지배해왔던 미국영화에 대한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새로운 혁명 영화를 창조하는 목적의 영화진흥기구의 역할을 했습니다. 리틴 감독은 이 기구를 통해서 10분짜리 뉴스릴을 매주 제작했고, 이를 통해 칠레 민중들에게 새로운 정권을 홍보를 했습니다.

1973년에 만든 <약속의 땅La tierra prometida>이라는 영화는 그가 만들었던 뉴스릴, 다큐멘터리와는 달리 많은 관객들에게 대단히 감동을 줬던 1930년대 농민 투쟁을 다룬 극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공장과 농촌 등지에서 민중들을 각성하는데 활용되었고요. 그러나 1973년도 바로 그 <약속의 땅>이 개봉되던 그 해에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3년간의 칠레

혁명과 사회주의 정권은 무너지고 맙니다. 리틴은 <약속의 땅>과 더불어서 맥시코로 탈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죠. 그 이후로 리틴의 모든 활동은 이제 조국인 칠레를 떠나 밖에서 칠레를 위한 혁명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망명 영화인으로서 리틴 감독이 계속 밖에서 영화를 만들게 되다가 결국은 <칠레의 모든 기록>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칠레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재조명하게 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칠레를 떠난 리틴 감독이 밖에서 만든 영화중에서 리카라과의 혁명을 조망한 유명한 영화가 있죠. 니카라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장편영화이기도 하고요, 바로 <알시노와 콘도르Alsino y el condor>(1982) 라는 영화 입니다. 이 영화는 칠레 밖에서 활동하지만 여전히 세계 영화계 큰 공을 세우고 있던 리틴 감독의 명성을 다시 한 번 떨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칠레의 모든 기록>입니다. 리틴 감독은 일관되게 "진실을 증언하고, 혁명적 전망을 열고 혁명이 무엇인지를 해명하고, 그래서 혁명을 심화시키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현실에 대해서 도식적이거나 관습적이고 고정적인 인식을 거부하고 "풍부하고 역동적인 현실 속으로 카메라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다큐멘터리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칠레의 모든 기록>은 다큐멘터리이긴 하지만 어떤 극영화도 감당하지 못했던 아주 포착하기 힘든 삶의 현실을 포착해냈고, 그리고 역사와 진실에 대한 증언을 아주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역사의 이정표로서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제3세계영화 가운데 가장 활발한 권역은 중남미 였습니다. 그 외에도 아프리카, 아시아에도 확산되었는데, 세네갈이나 필리핀이 그중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세네갈의 우스만 셈벤느 감독이나 필리핀의 리노 브로카 감독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과 신식민주의정치를 비판적으로 반영하는 영화를 만들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제3세계 영화를 리틴 감독의 <칠레의 모든 기록>을 대표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지금은 조금 지나간 이야기 같지만 여전히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제3세계 영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보았습니다.